



그리스 사태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김진억 수석담당역

-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제공이 전격 조건부 합의됨(7. 13)에 따라 그리스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그렉시트로 인한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리스 사태는 유럽 금융시장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보험회사들은 그리스사태로 초래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¹⁾되고 있음.
 - 그리스 경제에서 보험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보유 위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 보험산업 규모는 수입보험료가 2014년 39억 6천만 유로(약 5조 원)에 불과하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 그치고, 1인당 보험료도 478달러 수준임.
 - 이는 인접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도 규모가 작은 것으로 그리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인접한 유럽 보험시장으로 퍼질 우려가 낮음.
 - 다수의 유럽 보험회사들이 그리스에서 손해보험회사²⁾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영업 측면에서 모그룹 차원의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 않음.
 - 그리스에 진출한 유럽 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는 모그룹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그리스의 보험영업리스크가 유럽 모그룹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됨.

〈표 1〉 그리스 및 인접 유럽 보험시장 주요 지표(2014)

국가	GDP (십 억 유로)	인구 (백 만명)	1인당 실질 GDP	GDP 증가율	시장 침투율	수입보험료 (십 억 유로)	1인당 보험료(달러)	세계 순위	수입보험료 성장률(%)
그리스	179.08	11.0	16,970	0.77%	2.2%	3.96	478	47	-1.2%
이탈리아	1616.05	60.0	25,638	-0.42%	9.1%	146.53	3,078	7	15.2%
포르투갈	173.05	10.4	16,150	0.90%	8.3%	14.41	1,821	32	9.0%
스페인	1058.47	46.5	22,669	1.39%	5.1%	53.78	1,532	14	-0.8%

자료: A.M. Best, 수정 인용.

1) A.M. Best(2015, 7, 9), "Instability in Greece Creates Volatility but Eurozone Insurers Remain Robust".
 2) 그리스 제1의 손해보험회사는 Ethniki Hellenic General Insurance Co. S.A.로 그리스 국립은행이 소유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 상위 10개사 중 유럽계 손해보험회사는 4개사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분야는 수출신용보험이며, 또한 재보험회사들도 가능성은 낮으나 그리스 출재보험회사들의 미지급 보험료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

- 그리스 수입업자들의 수출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수출신용보험의 경우 그리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그리스에 대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s)는 지난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에 걸쳐 제한되어 왔고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에 대한 신용보험 금액 또한 상당히 낮아졌음.
- 재보험회사들은 잠재적 그렉시트에 따른 수재보험계약의 표시통화가 달라질 경우 리스크를 가질 수 있고 유로나 달러로 표시되었더라도 그리스 출재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됨.

■ 유럽 보험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그리스 사태로 인한 유로존 전체의 불안정성과 인접 유럽지역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전염효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임.

- 그리스 사태는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일부 초래하였으며, 주목받고 있는 몇몇 유로존 국가의 정부채 금리가 동조하여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인접 유로존 국가의 신용위험도 증가하면서 2012년보다는 금리차가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0년물 정부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함.

■ 그러나 그리스 사태와 이로 초래될 수 있는 그렉시트가 주변 유럽국가에 미칠 영향은 2011년과 2012년에 최고조에 이르렀던 유럽 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때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의 재정은 광범위한 긴축조치를 이미 시행함으로써 그리스 재정보다는 훨씬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유럽 보험회사들은 2012년 이후 그리스 국가부채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를 줄여왔으며, 그리스 인접 유럽국으로부터 자산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왔음.

■ 다만 우려되는 점은 잠재적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인접 유로존 국가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정부로 초래된 좌파적 성향이 인접 유로존 국가에 정치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음.

(A.M. Best, 로이터 등)